

1) 서원의 성립배경

흔히 서원의 건립주체는 조선시대 지방향촌사회의 엘리트집단이라고 그 성격이 규정되는 사림세력을 든다. 그러므로 서원의 성립배경으로는 조선 초기에 이 사림세력들이 향촌사회에서 자기 세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원래 이 사람들은 15세기의 집권세력이던 훈구파와 함께 고려 후기의 이른바 신흥사대부에서 분파된 세력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신흥사대부는 지방의 중소지주층 출신으로 새로운 사상체계인 성리학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경제의 바탕으로 삼았다. 이에 중앙의 권문세족들의 정치행태와 경제적 모리행위 등에 대해 비판하면서, 고려 후기의 사회 불안과 국가 시련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인으로 대두하고 있었다.

중소지주층의 지식인화는 그들의 정치 진출을 발판으로 하여 이루어낸 조선왕조의 개창을 계기로 더욱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왕조의 개창을 계기로 이성계에 협력하고 정치 전면에 나서서 정치적 이념을 직접 구현하고자 하였던 한 부류와, 이와는 달리 새로운 왕조의 개창이 의리·도덕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역성혁명의 참여를 거부하고 향촌에 내려가 교육과 자신의 수양에 주력하는 부류로 나뉘었다. 흔히 전자를 훈구파, 후자를 사림 또는 사림파라고 부른다.

사림의 학풍은 경학에 치중하고 성리학에 대한 신봉이 깊었으며,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였고 왕도정치의 구현을 이상으로 삼았다. 한편 성리학 외의 다른 학문과 사상은 이단이라 하여 배척하였고 기술학을 천시하였다. 이들은 또한 향촌사회에서의 자기 세력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본래 지방의 중소지주라는 기반을 가진데다가, 정치적으로도 재야의 비판자 그룹으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조선 초기의 관권 우위의 향촌통제책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주목되는 것은 사창제(社倉制)와 향음주례의 실시 및 유향소(留鄉所)의 복립운동 등이다.

사창제는 주자가 고안해낸 일종의 진대제(賑貸制)로서 모곡(母穀)의 마련에서부터 운영까지가 모두 지방의 자치적 운영에 맡겨져 있으면서 그 이율이 매우 저리였다. 이 제도는 향촌의 일반 구성원들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시행된 것으로서 조선 초기 문종대에 영남의 10여 읍에서 실시되었다.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추구한 것은 향촌 구성원을 안정시킴으로써 향촌사회에서의 자신들의 기반도 안정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림들의 사창제 운영노력은 세조의 집권과 함께 그 추진자들이 모두 몰락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 같은 목적으로 유향소의 복립운동을 벌였다. 유향소는 여말선초에 지방의 품관들이 자의적으로 조직한 지방자치기구였는데, 강력한 집권체제의 구축을 도모하던 태종에 의해 수령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하여 일차 폐지된 적이 있었다. 그러다 1428년(세종 10)에 고을의 풍속을 단속한다는 목적으로 부활되었지만, 이때는 수령의 관권에 기생하여 오히려 백성을 수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태종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집권체제를 추구하던 세조가 집권하면서 다시 모두 폐지되었다.

김종직과 그 문인들, 즉 사림들은 세조 때에 혁파된 유향소를 다시 부활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때의 유향소가 향사례(鄉射禮)·향음주례를 시행하는 기구로서 복구가 도모되었다는 점에서는 앞서의 유향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이 향사례·향음주례는 본래 향촌질서 파괴자의 참가를 배제하고 예절의 권장을 통해 향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

향소의 복립운동은 여러 차례의 논란 끝에 1488년(성종 19)에 비로소 이루어지지만 훈구세력의 집요한 반대로 결국 실패를 거두지는 못하였고, 연산군대의 거듭된 사회로 말미암아 사림세력 자체가 큰 타격을 받기도 하였다.

사림들에 의한 향촌기반 확보노력은 사림이 정계에 진출한 중종대에 다시금 전개되었다. 당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들은 새로이 향약의 보급을 통해 향촌에서의 기반을 다져나가려는 노력을 전개하였고, 이 향약보급운동은 기호·영남 일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향촌기반 확립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조광조 등은 문묘종사(文廟從祀)와 교학체제의 혁신 같은 정책도 주창하였다.

문묘종사운동은 사람마다 도학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이를 숭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학에 뛰어난 학자를 문묘에 제향하여야 한다는 명분에 근거를 두고 사림계 유학자인 김굉필, 정여창 등의 종사를 추진하였다. 이는 그 자체가 사림계의 학문적 우위성과 정치입장을 강화해주는 측면과 함께 향촌민에 대한 교화라는 명분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한편 당시의 폐쇄한 관학에 대신하여 사림들은 도학정치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과 성리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교학체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곧 종래의 관학체계가 아닌 새로운 교육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의 여러 노력들은 연산군 때와 마찬가지로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로 인해 사림과가 크게 세력을 잃음으로써 다시 모두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난기에 사림들은 그들의 공도론(公道論)의 정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판자세를 내면적으로 승화시켜 학문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발전에 따라 사림의 수적 확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이 시기의 학연(學緣)의 커다란 증가가 잘 말해준다.

이와 같은 학문적 역량의 축적에 의한 수적 확대는 마침내 중종 말기 사림의 교육기반 자체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였다. 즉 종래의 서재·정사류 같은 그들의 교육기반이 이제 새롭게 서원으로 바뀌어 나타난 것이다. 서재·정사류는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지방선비들의 단순한 교육의 장소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서원은 단순히 강학의 장소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선성(先聖)·선현을 제사 지내는 사묘(祠廟)를 가지면서, 엄격한 학규에 따라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림들이 제기한 문묘종사운동과 교학체제의 혁신 주장이 결합하여 나타난 기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서원의 성립은 곧 사림의 질적·수적 발전에 따른 사학의 비중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림들의 세력 결집의 구심처를 확립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원의 효시는 풍기군수였던 주세붕(周世鵬)이 세운 백운동서원이다. 주세붕은 1541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해와서 이곳 출신 유학자인 안향(安珦)을 모시는 문성공묘(文成公廟)를 세워 배향해오다가 1543년에 이를 유생교육을 겸한 서원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경상감사의 도움을 받아 학전과 서적을 구입하고 노비 및 원속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원의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이렇게 하여 성립된 서원이 보다 체계를 갖추고 발전하게 된 것은 이황의 노력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황은 교화가 실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화를 담당할 사림의 습속을 바로잡고 학문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도학을 천명하고 밝히는 길밖에는 없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도장으로서 서원의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논리적 근거 위에 마침내 풍기군수로 재임하게 되어, 백운동서원에 대해 사액과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이루어냈다.

이밖에도 고향인 예안에 역동(易東)서원의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10여 곳의 서원건립에 참여하거나 서원기를 짓는 등, 서원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시에 그는 내면적인 체제정비에도 힘써서 유생들의 교육처로서 강당과, 제사처로서 사묘를 구비한 서원의 체제를 정식화하고, 또 원규를 만들어 운영방안도 규정하였다.

따라서 조선 초기 이래 계속된 향촌에서의 사림활동 구심체 기구의 모색노력은 종종 초에 조광조 일파의 문묘종사운동 및 새로운 교학체계 혁신 주장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마침내 서원의 형태로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황에 의하여 정착·보급되기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